DOI | https://DOI.org/10.21481/jbunka..79.201811.411.

일본이해 과목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실천 사례 보고*

—교수자 부담 경감을 생각하며—

조 선 영**
(e-mail : huyuski@daum.net)

<목 차>

1. 들어가기
2. 선행연구
 2.1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2.2 교양교과목으로서의 일본이해 과목
3. 연구 목적 및 방법
 3.1. 연구 목적
 3.2. 연구 방법
4. 수업 실천 사례 보고
 4.1. 수업의 개요
 4.2. 수업진행1: 강의 및 조별활동
 4.3. 수업진행2: 포스터 발표
 4.4 평가에 관하여
5.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6. 교수자의 부담에 관하여
7. 나가기

キーワード：学習者中心授業(Leaner-centric class), 実践報告(Practical report), 教師の負担(Burden on the teacher), 満足度調査(Satisfaction survey), 4次産業革命(4th Industrial revolution)

1. 들어가기

교육에서 특히 대학교육에서 종래의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주지하는 바이다. “대학혁명”에서 투데스텟은 이미 2000년에 학부교육의 미래에 관해서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예견하고 있으며 ‘학생은 학습자로, 선생은 디자이너, 코치, 컨설턴트’로 변화하며, ‘학습자 중심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1]. 한편 학부교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배재대학교 기초교육부, 부교수, 일본어교육

www.kci.go.kr

육은 ‘단순히 직업만을 준비’ 하는 곳이 아니라 ‘훌륭한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하는 폭넓은 지적개발’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 남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표출하고 있다[2].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교육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으며 일례로 최근의 학술대회명을 살펴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되지 않은 학회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이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등을 인식하면서 이에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함양시켜야 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미래전략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2017)』에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미래의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3대 역량은 “①기계와 차별화된 인간 고유의 문제인식 역량 ②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 ③기계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것은 11대 세부역량이다. 이 중 <인간 고유의 문제 인식 역량>의 하위역량으로서,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능동적 자료탐색 및 학습 능력, 비판적 상황 해석력”을,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의 하위역량으로서는 “구조화/설계된 휴먼 모니터링 능력, 유인형 협력 능력, 협력적 의사 결정력,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시스템적 사고”를,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는 “디지털 문해력, 정교한 첨단기술 조작 역량, 휴먼-컴퓨터 조합력”을 도출하고 있다[3].

이와 같은 역량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은 가장 기본적인 역량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대학의 학부교육 중 교양강의에서 이러한 기본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가 이 논문에서 보고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실천이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이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니콜라스 카(2010)는 다양한 실험결과를 통하여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이를 이전의 책을 읽던 뇌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1) 제임스 J. 두데스텟(2000)『대학혁명-미국 대학 총장의 고뇌-(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이철우 · 이규태 · 양인 역(200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132
2) 위의 책, p.150
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미래전략 보고서: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도서출판 지식공감, pp115-156

www.kci.go.kr

것이며, 이를 인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4]. 모바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교수법을 고안해야 하는 필요성이 명확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교수자의 수업실천사례를 본인의 수업에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은 교수자의 부담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부분의 새로운 교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 뿐 아니라 진행과정에서도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비해 많은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해 본 교수자도 준비 및 실천에 있어서 다양한 부담의 상승으로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한편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실천 사례는 특정 대학의 특정 LMS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과목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즉 교수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좀 더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실천 사례의 보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교수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며, 일본 이해 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수업에서도 응용해 볼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으로 수업에 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 수업 실천사례 보고는 교양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공과목에서는 학습자간의 친밀감 및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자 중심 수업실천이 보다 용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년과 전공이 모두 섞여 있는 교양과목에서는 교수자의 피로도가 더 클 수도 있다.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일본어 강좌 중에는 일본 이해에 관한 수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조선영, 2016)가 있으며 이에 이 보고에서도 일본 이해에 관한 수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선행연구

2.1.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학습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철학은 학습자 중심이라는 개념과 함께 1980년대에 다양한 교육 분야에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철학은 지난 50년

4)니콜라스 카(2010)『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터넷이 우리의 뇌구조를 바꾸고 있다(The Shallows)』최지향 역, 청림출판, p.60

www.kci.go.kr

동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왔다(Richards & Rodgers, 2014).

교수-학습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학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과거의 '전통적 패러다임'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교수자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학습자의 역할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경험-과학적 패러다임'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다른 학생 간에 양방향적 상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게 되므로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요청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패러다임도 교사의 지식과 경험이 유일한 '채널'이 되어 학생들의 학습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공학적 패러다임'으로 이는 '사회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패러다임이며,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수요자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더하여 학습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담고 있는 지식베이스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5].

이 패러다임에서 중시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의 특징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 '열린 학습환경', '협동적 학습환경'이 제공되고 교수-학습과정이 다양해야 한다고 정리되고 있다[6]. 특히 '교수-학습과정의 다양화'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의 '개방성 및 접근성, 신속성'을 통해 수업의 다양화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관해서 학습자의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기부여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성취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작은 성취감도 필요하고 보다 큰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필요하다. 이때 성취감은 외적인 보상이 주어질 때보다 내적인 보상이 주어졌을 때, 즉 스스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때 더욱 견고한 것이 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또한 학습자의 자율성은 학습 동기 및 학습자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놓여 있는 현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G. Murray, X. Gao and T. Lamb, 2011).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 수업이 앞으로의 시대흐름에서는

5) 백영균 외(2015)『스마트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4판)』학지사, pp.56-60
6) 앞의 책, pp.92-94

www.kci.go.kr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제공하였는지 제시하고 이에 관한 학습자의 만족도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교양교과목으로서의 일본이해 과목

일본 관련 교양교과목의 현황을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에서는 총 12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중 32%인 40개 과목이 일본문화 · 문학 · 역사 등과 관련된 일본이해 과목이었다(조선영, 2016). 이 중에서는 '문화'를 키워드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양과목으로서 일본 문화 관련 수업에서의 일본문화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李南淑(2016)은 일본문화교재를 Finocchiaro and Bononmo 및 Chastain의 문화분류기준에 기초하여 10종의 교재를 분석, 내용의 특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분류기준의 대분류는 물질문화 및 행동문화, 정신문화로 구분되는데 10종의 교재는 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분류 항목에 있어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은 항목도 있는 등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통 및 통신'과 '가족의 생활'에 관해서는 2종의 교재에서만 다루고 있었으므로, 李는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문화지식을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문화이해 과목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교재를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들다.

한편 교양일본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동기를 살펴보면 '일본문화 및 일본 여행 등의 내발적 동기'와 더불어 '장래를 위한 준비 등의 외발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田中 · 柳, 2011).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에 따라 일본이해과목도 일본문화에 대한 기존 지식을 전수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외발적 동기도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일본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서론에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교수자의 역할에 추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습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일본이해 과목에서 현재의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고 학생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필요한 것을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천한 수업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www.kci.go.kr

3.연구 목적 및 방법

3.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실천사례보고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학습자 중심 강의에서 간과되어 온 교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먼저 학습자 중심의 강의를 진행한 실천사례 보고를 통하여 학습자 중심 강의 진행에서 필요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수업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 강의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경험의 전달자로서의 교수자의 역할에 추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바 교수자의 부담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간과되어 왔던 부분이다. 이러한 교수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앞으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서라도 학습자 중심 강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의 흐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2. 연구 방법

학습자 중심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것을 토대로 수업 실천한 사례를 보고하고 이러한 수업에 관하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로 제시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교수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4. 수업 실천 사례 보고

4.1. 수업의 개요

과목명 및 수업 목표, 개설학기 및 학생 수, 학점 및 시간은 다음 표1과 같다.

1)과목명: 인터넷으로 일본 트렌드 엿보기

www.kci.go.kr

2)수업목표: (1)일본의 현재 모습, 트렌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일본에 대하여 폭넓게 알기 (2)조별 구성원들과 협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혼자보다 나은 결과물을 산출 3)개설학기 및 학생 수: 2014년 1학기부터 개설, 35명 이내 4)학점 및 시간 : 2학점(교양선택과목), 주 2시간

<표1>수업 개요

수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하였으며, 일본의 현재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과 함께 협동하여 보다 나은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는 점과 필요한 인재상의 하나인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토대를 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각 주별 진행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1주: 강의 안내, 짧은 이야기 나누기 연습
(2)2주~5주, 9주~12주: 일본 트렌드 강의 및 학생 조별 활동
(3)6주~7주, 13~14주: 포스터발표 준비 및 실시
(4)8주 및 15주: 중간 및 기말시험

이 중 2주부터 5주까지 및 9주부터 12주까지 총 8주간 진행된 '강의 및 조별 활동'에 관하여 다음 4.2절에서 보고하고, 6주와 7주 및 13주와 14주에 진행된 '포스터 발표'에 관하여 4.3절에서 보고하고자 한다.

4.2. 수업 진행1: 강의 및 조별 활동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 및 시간 배분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②~④는 조별활동에 해당된다.

①강의(35분)→ ②이야기 나누기(10분)→ ③인터넷 검색 및 의견나누기(40분)
→ ④게시판 업로드(10분) → ⑤전체 리뷰(5분)

각각에 대하여 목표 및 내용, 진행시 주의사항,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교수-학습 패러다임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학습환경과 관련되는 점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1)강의

일본의 현재 모습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 강의가 진행되었다. 매주 2-3개의 주제를 가지고 개념 정의 및 현황 등에 관한 강의로,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 도쿄올림픽, 평균수명, 마이넘버제도, 금융사기, IPS세포, 독도문제, 한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관광이나 애니메이션 등에 편중된 일본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다만 강의는 기초지식 정도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교수자의 지식전달이라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2)이야기 나누기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기'를 하였다. 이때 3명씩 한 개 조로 구성하여 조별활동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프리라이더가 없도록 유념하였다. 이야기 나누기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 혹은 지인의 경험이나 뉴스 등에서 접한 이야기 등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여 서로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각자의 겸험 등에 기초함으로써 이야기나누기가 쉽게 시작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이때 이야기 나누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에는 개입하여 간단하게 질문하는 등 짧은 시간에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또한 이때 나눈 이야기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여 대학 LMS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각 조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기가 이루어졌는지 교수자 뿐 아니라 학습자도 파악할 수도 있고, 또한 학습자들이 요약해서 올리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3)인터넷 검색

학생들이 흠미를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야기 나누기 등을 통해서 관심이 생긴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각자 핸드폰 검색을 통하여 관련 뉴스나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각자 검색한 내용은 조원들 간에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열린 학습환경 및 협동적 학습환경도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검색한 내용은 요약하여 검색한 url 및 조원들의 의견과 함께 인터넷 상의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모든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블로그나 카페글은 개인의 의견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업로드한 내용 중의 url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www.kci.go.kr

정보 검색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조원들 간에 의견 나누기를 하도록 하여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교수-학습과정의 다양화'는 전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게시판 업로드

각 조에서 검색한 내용을 모든 학생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이 수업에서 이용한 것은 linoit.com이라는 무료사이트로 다음 그림1과 같이 각 조의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온라인 상의 보드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든 조의 내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LMS에서는 게시판 등의 기능에서 제목(또는 요약)을 한꺼번에 볼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한 화면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다른 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조의 내용에 관하여 반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그림1>lino 게시판 예시

<입금 사기(후리코메사기)와 관련하여>
2004년도까지 보이스피싱이라했지만 2009년부터 입금사기로 명칭을 통일했다. 전화로 거는 사기의 경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2시경이 많다. 최근에는 처벌의 형량이 약한 미성년자 피의자가 증가하고있다.
참고 사이트
정의 및 수법 대책방법
http://ja.m.wikipedia.org/wiki/振り込め詐欺
http://kenrei1.blog50.fc2.com/blog-entry-32.html
미성년자 범죄자 증가에 관련된 기사
http://news.yahoo.co.jp/pickup/6127771
검색전 생각/ 김**: 입금 사기에 대하여 들어는 봤지만 잘은 모른다./성**: 우리나라에서 자주일어나는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과 비슷한 것 같다.일본은 어떨지 궁금하다
검색후 생각/ 김**: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 공감이 크게 가지 않지만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정의나 수법을 보며 나도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 내 주변에서도 일어난 적이있는 사기라 어느정도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만 잘 일어나는줄 알았는데 일본 역시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표2>lino 게시글 내용 예시

(5)전체 리뷰

학생들이 검색한 내용 중에 정보 오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검색되었는지 개괄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검색 내용을 소개한다. 모든 조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개괄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비슷한 내용이라도 언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모든 조의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수업진행1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강의 및 조별활동을 구성하였다.

www.kci.go.kr

4.3. 수업 진행2: 포스터 발표

포스터 발표는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직전에 각 1회씩 총 2회 진행되었으며, 6주와 13주에 포스터 준비, 7주와 14주에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목표 및 내용, 진행시 주의사항, 그리고 제공된 교육환경에 대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포스터 준비: 6주 및 13주

포스터의 형식은 전지에 유성마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그림2 참조). 이는 수업 시간이내에 전지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교양수업의 특성상 구성원이 수업 이외 시간에 모이는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일본트렌드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3명씩 자율적으로 조를 구성하여,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내용을 검색,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 때 주제 선정과정에서 조별로 겹치지 않도록 교수자가 각 조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하였다.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의 4가지 요소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2> 포스터발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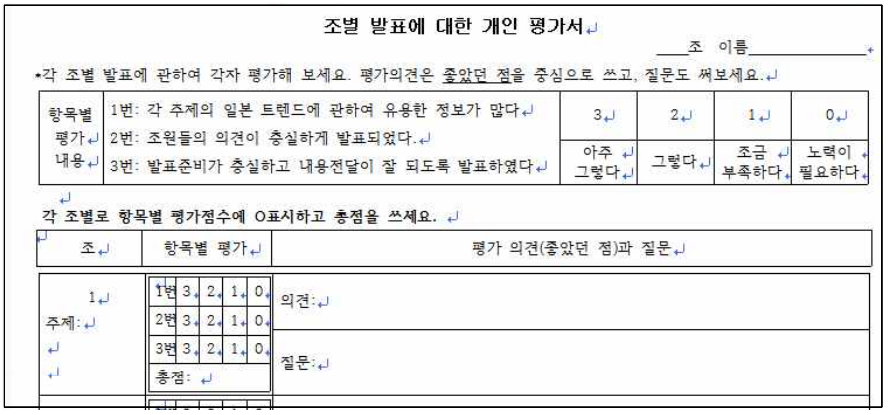
<그림3>질의응답 시간

(2)포스터 발표: 7주 및 14주

학회의 포스터 발표와 마찬가지로 강의실의 벽면에 모든 포스터를 부착 후 조별로 3분 이내 발표하도록 하였다. 발표를 들으면서 다른 조의 학생들은 그림4와 같은 개인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인 평가서는 각 조에 대하여 3가지 항목에 관하여 0점부터 3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항목에 관해서는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설명하였다. 또한 평가의견은 '좋았던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객관적인 점수로서 평가는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자세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자 1개 조에 관해서 질문을 기술하여, 이후 질의응답시간에 이 중 2개를 선정하여 질문하도록 하였다. 4.4의 평가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개인 평가서는 조별 점수부여 및 개인 점수 부여에 활용하였다.

www.kci.go.kr



조별 발표에 대한 개인 평가서

___조 이름_____

*각 조별 발표에 관하여 각자 평가해 보세요. 평가의견은 좋았던 점을 중심으로 쓰고, 질문도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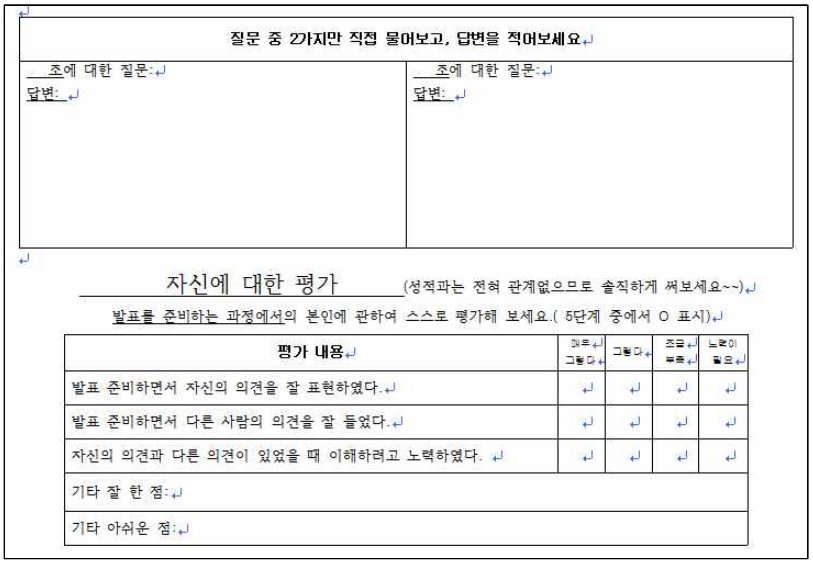
항목별 평가 내용	1번: 각 주제의 일본 트렌드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가 많다 2번: 조원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발표되었다. 3번: 발표준비가 충실하고 내용전달이 잘 되도록 발표하였다	3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1 조금 부족하다	0 노력이 필요하다

각 조별로 항목별 평가점수에 O표시하고 총점을 쓰세요.

조	항목별 평가	평가 의견(좋았던 점)과 질문
1 주제:	1번 3 2 1 0 2번 3 2 1 0 3번 3 2 1 0 총점:	의견: 질문:

<그림4> 개인평가서 앞면(상단 일부)

모든 발표 종료 후 그림3와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각자 관심 있는 2개 조에 찾아가서 질문하도록 하였다. 각 조에서는 1명씩 교대로 포스터 앞에서 대기하면서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의 응답한 내용은 그림5의 개인평가서 뒷면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개인평가서 뒷면에는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해보도록 하였으며 이는 성적과 무관함을 명기하여 학생 스스로 성찰을 해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질문 중 2가지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적어보세요

___조에 대한 질문: 답변:	___조에 대한 질문: 답변:

자신에 대한 평가 (성적과는 전혀 관계없으므로 솔직하게 써보세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본인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5단계 중에서 O 표시)

평가 내용	아주 그렇다	그렇다	조금 부족	노력이 필요
발표 준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였다.				
발표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기타 잘 한 점:				
기타 아쉬운 점:				

<그림5> 개인평가서 뒷면

www.kci.go.kr

4.4. 평가에 관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 평가는 또 하나의 어려운 점으로 흔히 지적된다. 이 논문에서 보고한 수업실천에서는 포스터 발표의 조별 점수와 함께 개인별 점수를 주요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교양교과목의 상대평가에 기준한 성적부여 방법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진행1에서 이야기나누기 및 인터넷 검색, 게시판 업로드는 참여하였을 경우 토론 점수로서 부여하였다. 즉 출석한다면 이 점수는 모두 부여받는 것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기본 점수이다.

다만, 수업진행1 이후 개별 활동으로 '수업 후 과제'를 부여하여 과제제출 여부로 개인별 점수를 부여하였다. 과제는 lino 게시판에 업로드 된 다른 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해 좀 더 검색한 내용 및 url, 자신의 의견을 LMS의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것이다.

수업진행2의 포스터 발표에 관해서는 개인평가서의 항목별점수를 합산하여 조별 순위를 확인, 조별로 5점~1점까지 부여하였다. 또한 개인 평가서의 조별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질문 등 기술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5점~1점의 개인별 점수를 부여하였다.

한편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수업진행1의 강의내용과 관련된 것이었고, 물론 개인별 점수에 해당된다.

수업에서 조별활동을 하는 경우 학생들은 평가 점수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평가와 관련해서 학기 초에 상세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포스터발표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수업실천에서는 수업진행1의 조별활동에 대해서는 점수의 차등을 두지 않았으며 이는 학생의 참여를 교수가 신뢰한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원을 3명으로 구성하고 교수자는 모든 조별 구성원의 참여 상황을 시야에 놓고 수시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는 6장에서 언급할 교수자의 부담과는 관련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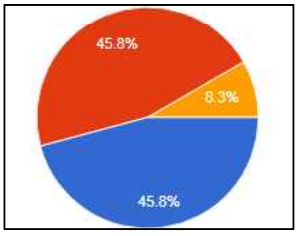
5.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4장에서 보고한 수업실천에 관하여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이 만족도조사는 2014년도 1학기(24명 응답)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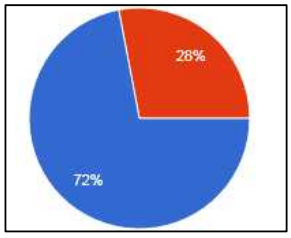
www.kci.go.kr

2학기(25명 응답)에 실시한 것으로 2개 학기 결과를 함께 참고로 제시한다. 참고로 2014년도 1학기는 본 수업을 처음으로 실천한 학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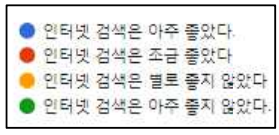
첫 번째로 수업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한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는 다음 그림6, 7과 같다. 그림6의 1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45.8%, '조금 좋았다'가 45.8%였고, '별로 좋지 않았다'가 8.3%였다. 그림7의 2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72%, '조금 좋았다'가 28%였다. 처음으로 실천한 학기에 비해 두 번째 학기에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 중의 하나로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수업 진행이 원만했기 때문인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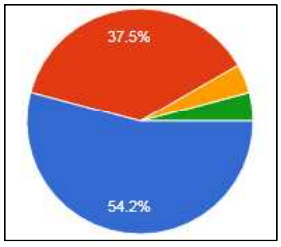
<그림6> 2014-1 설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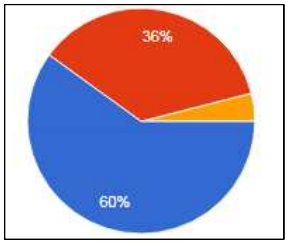
<그림7> 2014-2 설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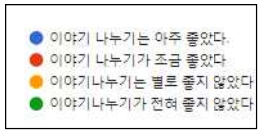
다음으로 검색내용을 토대로 조별로 이야기 나누기 한 것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는 다음 그림8, 9와 같다. 그림8의 1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54.2%, '조금 좋았다'가 37.5%였다. 그림9의 2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60%, '조금 좋았다'가 36%였다. 1학기와 2학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가 각각 4.2%. 4% 있었다.



<그림8>2014-1 설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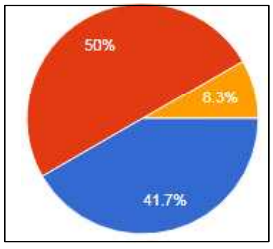
<그림9>2014-2 설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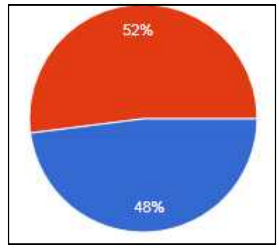
한편 이야기 나누기가 이 수업의 목표 중 하나인 일본 트렌드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한 결과는 그림10, 11과 같다. 1학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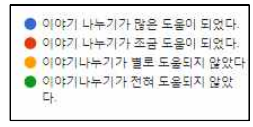
었다'가 41.7%, '조금 도움이 되었다'가 50%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8.3%였다. 2학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48%, '조금 도움이 되었다'가 52%로, 부정적인 평가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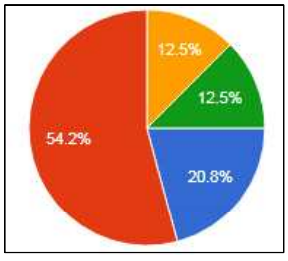
<그림10>2014-1설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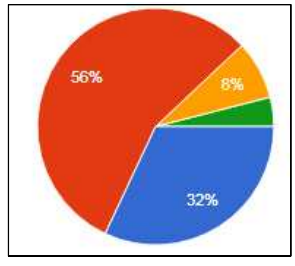
<그림11>2014-2설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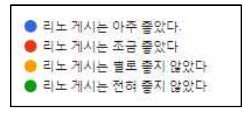
인터넷상의 게시판인 lino에 게시한 것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그림12, 13에서 볼 수 있다. 1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20.8%, '조금 좋았다'가 54.2%였고, '별로 좋지 않았다'가 12.5%, '전혀 좋지 않았다'가 12.5% 있었다. 2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32%, '조금 좋았다'가 56%였고, '별로 좋지 않았다'가 8%, '전혀 좋지 않았다'가 4%였다. 1학기에 비해서 '아주 좋았다'가 10%이상 향상되었고, '좋지 않았다'는 의견은 10%이상 감소 되었다. 리노게시판의 운영에 대한 교수자의 숙달도가 향상된 만큼 만족도도 높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림12>2014-1 설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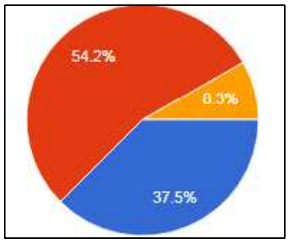


<그림13>2014-2 설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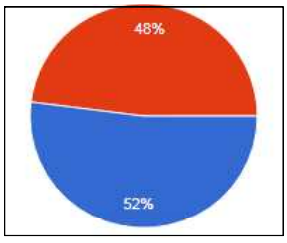


조별 포스터발표와 관련한 만족도는 그림 14, 15에서 살펴볼 수 있다. 1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37.5%, '조금 좋았다'가 54.2%였고, '별로 좋지 않았다'가 8.3%있었으나, 2학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평가는 없었다. 2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52%, '조금 좋았다'가 4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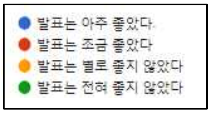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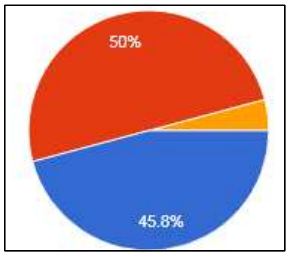
<그림14>2014-1 설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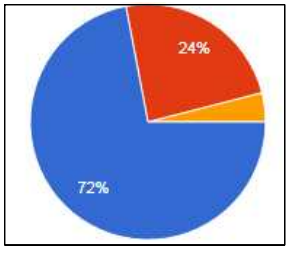
<그림15>2014-2 설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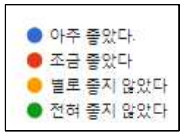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 그림16 및 그림17과 같았다. 1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45.8%, '조금 좋았다'가 50%였고, '별로 좋지 않았다'가 4.2%였다. 2학기에는 '아주 좋았다'가 72%, '조금 좋았다'가 24%였고 '별로 좋지 않았다'가 4%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학기에 비해 2학기에는 '아주 좋았다'는 의견이 26.2%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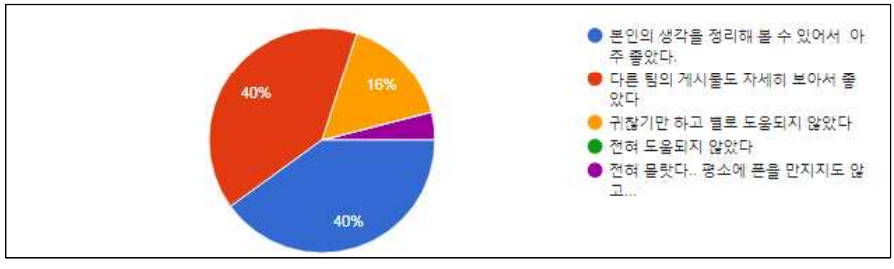
<그림16>2014-1 설문6



<그림17>2014-2 설문6



한편 4.4에서 언급한 수업후 과제는 2014년도 2학기에만 실시하였으며 이에 관한 만족도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18과 같다.



<그림18>2014년도 2학기 설문6

www.kci.go.kr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응답이 40%, 다른 조의 게시물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가 40%로 긍정적인 평가가 80%였다. 하지만 귀찮기만 했다는 응답이 16%, 과제에 대해서 몰랐다는 응답이 4%였다.

6. 교수자의 부담에 관하여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 수업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교수자의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논문에서도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떤 실천을 하였는지 4장에서 보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학습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는 것을 5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교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을 했는지 또한 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교수자가 주도하게 되는 강의 관련과 평가, 학습자가 보다 중심이 되는 조별활동과 포스터발표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1) 강의 관련

먼저 강의 준비는 35분 분량이 되며, 기존 100분 강의에 비하면 교수자의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 준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다만 이 수업은 ‘트렌드’에 관한 것이므로 매학기 내용을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다. 또한 강의진행과 관련하여 대학의 LMS를 세팅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인 lino에서 그룹을 개설하는 것은 학기 시작 직전에 완료하고, lino의 그룹에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은 수강변경신청 완료 후인 제2주차 수업 내에 완료하게 된다.

2)평가 관련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기존 강의와 마찬가지로 실시하게 되며 강의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시험 출제에 대한 부담도 약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중심으로 이야기나누기 등의 조별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수업 시간 중의 조별 이야기 나누기에 관해서는 성적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수업 중에는

www.kci.go.kr

보다 학생들을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하지만 교양수업의 한계인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점수의 변별화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별로 수업후 과제를 부여하여 과제 제출 여부로 점수를 부여한다. 수업 중 검색 및 이야기나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일수록 수업 후 과제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 과제여부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수업 중의 참여도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포스터발표에서는 학생 전원이 부여한 점수를 토대로 하여 조별 점수를 부여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의 측면에서도 교수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 한편 개인별 평가서에 관해서는 1점~5점의 점수를 부여하지만 모든 조에 관하여 평가와 질문을 1줄씩 모두 작성한 경우 5점, 2/3이상 작성한 경우 4점, 1/2이상 작성한 경우 3점, 1/2이하로 작성한 경우 2점, 3개조 이하에 관해서 작성한 경우는 1점으로 하는 등, 정확하고 일목요연한 기준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개인별 평가서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는 일반적인 과제 등에 비해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다양한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기존에는 교수자의 추가부담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가진다면 개인별 평가에도 교수자의 시간과 노력이 종래에 비해 크게 가중되지 않으며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조별활동 관련

조별활동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지만, 교수자가 '촉진자'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활동누락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 수업에서는 3명을 조원으로 구성하여 활동누락자가 없도록 의도하였으며 또한 이야기 나누기 및 인터넷 검색 후 의견 올리기 활동 등에 대하여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를 종이에 기록하도록 하면 수거 및 검토 등에 교수자의 부담이 가중되나, 모든 기록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수자는 실시간으로 수업 중에 점검하여 바로 촉진자로서 개입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인터넷 업로드는 학생들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수업시간 중의 이야기 나누기 및 검색,

www.kci.go.kr

의견나누기 등에 관해서는 점수화하지 않으므로 교수자는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강의실 내를 순회하며 실시간으로 이야기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에 대해 응답하고, 또한 내용을 좀 더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확실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4)포스터발표 관련

포스터 발표 준비 중에는 조별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내용의 방향 등에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는 등의 교수자 활동이 필요하나 이는 모두 수업 시간 중에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포스터 발표 중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역할로서 발표 3분과 개인 평가서 작성 1분에 대하여 공지한다. 포스터 발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점수를 합산하고, 개인 평가서를 간단하게 평가하면 된다.

7. 나가기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이해 수업에서의 학습자 중심 수업실천사례를 보고하였으며 이때 다른 과목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실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것임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 준비 및 진행에서 교수자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통적인 교수-학습 패러다임에서의 지식전달을 위한 강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이 익숙한 모바일을 활용하여 조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안한다면 학습자의 만족도도 높은 수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한편 성적평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된다면 조별활동의 평가에 대한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 중에 모바일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 또한 함께 자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보의 홍수에 빠지지 않도록 수업시간 이내의 일정 시간 중의 검색에 제한하였다. 포스터발표 준비 또한 수업 시간 중의 검색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www.kci.go.kr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미래역량과 관련하여 이 수업에 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 수업에서는 <문제 인식 역량>과 <대안 도출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본 트렌드에 관한 내용에 관해 강의를 듣고 모바일을 통해 검색하는 것을 통해 <문제 인식 역량>의 하위 역량인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및 '능동적 자료탐색 및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색 내용에 관한 조별 이야기나누기 및 다른 조의 검색 내용에 대한 검토, 포스터 발표를 통해 '비판적 상황 해석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안 도출 역량>의 하위역량으로서는 "구조화/설계된 휴먼 모니터링 능력, 유인형 협력 능력, 협력적 의사 결정력,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시스템적 사고"가 제안되고 있는데, 8주에 걸친 조별활동 및 4주에 걸친 포스터 발표는 이러한 역량 향상의 기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면밀한 검토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교양교과 수업은 다양한 학년과 전공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최대한의 장점으로서 살리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조별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다만 수업 시간 이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명기하는 바이다. 이때 교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참고문헌】

니콜라스 카(2010)『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터넷이 우리의 뇌구조를 바꾸고 있다(The Shallows)』최지향 역, 청림출판, pp.37-6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미래전략 보고서: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도서출판 지식공감, pp115-156.

백영균 · 한승록 · 박주성 · 김정겸 · 최명숙 · 변호승 · 박정환 · 강신천 · 윤성철(2015)「제2장 교수-학습과정의 이해」『스마트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4판)』학지사, pp.49-95.

제임스 J. 두데스텟(2000)『대학혁명-미국 대학 총장의 고뇌-(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이철우 · 이규태 · 양인 역(200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p.130-152.

조선영(2016) 「교양일본어 강좌의 현황에 관한 일고찰-개설영역 및 과목명을 중심으로」『대학교양교육연구』1(1),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pp.79-92.

李南淑(2016) 「大学の教養科目における日本文化関連授業の教材分析」『比較日本学』36, 漢陽大学校日本学国際比較研究所, pp.319-334.

www.kci.go.kr

田中洋子 · 柳春善(2011)「動機づけの経時的変化に関する研究-教養課程で学ぶ韓国人大学生を対象に」『日本文化研究』38, 동아시아일본학회, pp.179-198.

Garold Murray, Xuesong(Andy) Gao and Terry Lamb (2011) “Identity, motivation and autonomy in language learning”, Bristol : Multilingual Matters, pp.57-74.

Jack C. Richards & Theodore S. Rodgers(2014)“언어 교육의 접근방법과 교수법 3판(Approaches &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전병만, 오준일, 김영태, 안병규, 오윤자 역(2017), 도서출판 케임브리지, p382.

논문 투고 일자 : 2018. 09. 30.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7.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www.kci.go.kr

<要旨>

日本理解科目における学習者中心授業実践事例報告
－教師の負担軽減を考える－

趙宣映

本稿では学習者中心の授業を実践した事例を報告し、また、教師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に必要なことについて考察した。まず学習者中心の授業の進行の際の必要な教育環境の提供を心掛け、学習者が積極的に授業に参加するよう促すための工夫を随時いれた。例えば、講義内容についてすぐ意見交換させるのではなく、3人のグループ内で5分ぐらいの話し合いの時間をもうけ、全員がインターネット検索や意見交換に積極的に参加できるよう導いた。さらに、学習者に選択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まず資料を提供し、自分で選ん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きる機会を与え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活動中の教師は学習者を支援し、学生のふりかえを促すために自分の活動について評価させた。このような学習者中心の授業に関して学生を対象に満足度調査を実施した結果、肯定的な評価が多かった。

このような学習者中心の授業を進行する際の教師側の負担に関しては、問題点として指摘されながらも、解決策に関しては議論されたことがなく、本稿ではこの点に焦点を当てて、講義や評価、グループ活動、ポスター発表に関して実践した内容を中心に提案した。学習者中心の授業を考案する際、教師の負担を軽減する工夫を同時に考えることは、授業を続けるための最優先条件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いけないと提案する。

Learner-centric classes: A practical case report on Understanding Japanese subjects
－Think about alleviating the burden on the teacher－

Joe, Sun-Young

In this paper, I report examples of practicing a learner-centric approach in classes, and in doing so, I discuss necessary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n teachers. First, I devised measures that would encourage learn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classes while trying to provide the necessary educational environment during the progress of the learning-centric classes. For example, instead of promptly exchanging opinions on lecture content, after spending about five minutes in discussion within groups of three, I guided everyone to actively participate in subsequent internet search and opinion exchange. Furthermore,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the learner to choose the topic for discussion, the teacher first provided the material, enabling an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to choose and communicate on their own. During communication activities, the teacher assisted the learners and allowed them to evaluate their activities, thus encouraging reflection from the students. Upon conducting a satisfaction survey for students regarding such learner-centric classes, positive evaluations were obtained as results.

While the burden on the teacher in enabling such a learner-centric class has been indicated, the solution has not been discussed and this article focuses on this point. I showed how I managed lectures, group activities, poster presentation and evaluation. When devising learner-centric classes, it is suggested that thinking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n teachers is a condition of the highest priority for continuing classes.

www.kci.go.kr